

연예

12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4



BTS ‘블랙스완’ 빌보드 핫 100 진입

그룹 방탄소년단이 17일 내놓은 신곡 ‘블랙스완’이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했다. 빌보드는 28일(한국시간) SNS를 통해 “‘블랙스완’이 57위로 데뷔하면서 방탄소년단의 8번째 ‘핫 100’ 진입곡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5월 이후 ‘페이크 러브’ ‘아이들’ ‘마이크 드롭’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등을 차트에 올린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블랙스완’을 포함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을 2월 21일 발표한다. 이에 앞서 방탄소년단은 2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5개국 22명의 현대미술작가와 협업하는 글로벌 전시 프로젝트 ‘커넥트(CONNECT)’, BTS’ 서울 전시의 막을 올렸다.

경찰, 김호영 성추행 무혐의 처분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연기자 김호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최근 송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PLK엔터테인먼트는 “고소인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김호영으로부터 작년 9월 성추행을 당했다며 두 달 뒤 그를 고소했다. 김호영은 이후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원더걸스 유빈·헤림, JYP 떠난다

걸그룹 원더걸스의 유빈과 헤림이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면서 멤버 전원이 각기 다른 소속사로 옮겨지게 됐다. JYP엔터테인먼트는 28일 “유빈·헤림과 25일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며 “몇 달 동안 논의를 거쳐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2007년과 2010년 원더걸스에 합류해 활동해왔다. 앞서 또 다른 멤버 선예와 소희는 2015년 팀을 탈퇴했고, 선미와 예은은 2017년 각각 메이커스엔터테인먼트와 아메바컬처로 이적했다.

에이핑크, 악플러 강경대응 밝혀

그룹 에이핑크가 악플러에 강경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소속사 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28일 “에이핑크에 대한 인신공격, 성적 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을 올린 자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채증 자료를 취합,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형사 고소 등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이핑크는 2017년 수차례 테러 및 살해 협박을 받는 등 지속적인 악성 댓글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송강호·이병헌·전도연, 항공 재난영화 ‘비상선언’ 의기투합

‘1000만 듀오+칸 여왕’의 역대급 만남

〈송강호·이병헌〉

〈전도연〉

송강호·이병헌 네번째 작품 호흡
전도연 합류 역대급 드림팀 완성
“캐스팅 공 들어…3월 촬영 돌입”

스크린 드림팀이 뜬다. 같은 영화에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제인 배우 송강호와 이병헌 그리고 전도연이 항공 재난극 ‘비상선언’으로 의기투합한다.

이들은 이르면 3월부터 ‘비상선언’(제작 우주필름·감독 한재림) 촬영에 돌입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 무대에서도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 인정받는 3인의 만남으로 ‘비상선언’은 올해 제작되는 작품들 가운데 최대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현재 미국에서 영화 ‘기생충’을 통해 각종 시상식 투어에 나선 송강호는 2월 10일(한국시간)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마무리한 뒤 귀국해 ‘비상선언’을 준비할 예정이다. ‘기생충’이 미국에서 거둔 눈부신 성과에 힘입어 송강호에 대한 영화계와 관객의 높은 관심이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자연스럽게 ‘비상선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병헌 역시 데뷔 이래 막강한 티켓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백두산’ 속 활약으로 820만 관객을 이끌었고, 현재 박스오피스 1위인 ‘남산의 부장들’로도 실력을 증명하고 있다. 덕분에

관객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여기에 최근 출연 제안을 받은 전도연이 긍정적으로 제작진과 논의를 진행하면서 3인의 드림팀이 꾸려졌다.

‘비상선언’은 항공기 내부의 재난상황을 막기 위해 목숨을 내건 사람들의 사투를 그린다. 극중 송강호는 소중환 사람들

지키기 위해 지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물로, 이병헌은 재난을 극복하는 열쇠를 쥔 인물을 각각 맡아 호흡을 맞춘다. 전도연은 관련 부처 장관 역할이다.

이들 세 사람이 그동안 다양한 연기활동을 통해 따로 또 같이 맺어온 인연도 새삼 눈길을 끈다. 송강호와 이병헌에게 ‘비상선언’은 네 번째 호흡이다.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부터 2016년 ‘밀정’까지 만날 때마다 시너지를 발휘한 두 배우는 ‘비상선언’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자마자 동시에 출연을 확정할 만큼 기대를 걸고 있다.

전도연 역시 송강호, 이병헌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2007년 송강호와 함께한 영화 ‘밀양’으로 ‘칸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이병헌과는 1999년 ‘내 마음의 풍금’부터 최근 ‘백두산’까지 세 편을 함께 했다.

‘비상선언’ 제작 관계자는 28일 “주연 외에 주요 배역 캐스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며 “늦어도 상반기 안에 촬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젝스키스·여자친구…새 전환점 맞는 아이돌 2팀

수없이 명멸하는 아이돌 그룹 가운데서 우뚝 서기란 쉽지 않다. 안팎의 잦은 요인이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자리를 거둔히 차지한 제스키스와 걸그룹 여자친구가 더욱 빛을 발하는 까닭이다. 이들이 다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팬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다시 앞으로 내달릴 두 팀의 각오가 새롭다.



젝스키스



여자친구

4인조 재탄생 젝키 “노래로 마음 녹여줄게요” ‘방시혁표’ 여자친구 “스토리텔링 더했어요”

‘올 포 유’로 2년 4개월만에 컴백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노력할것”

1세대 아이돌 그룹 제스키스(은지원·이재진·김재덕·장수원)가 또 다른 출발선에 섰다. 해체 16년 만인 2016년 재결합하며 5인조로 새롭게 태어났던 이들이 이번엔 4인조가 되어 돌아왔다.

젝스키스가 28일 첫 번째 미니앨범 ‘올 포 유’를 선보이며 2년 4개월 만에 무대에 나섰다. 지난해 멤버 강성훈이 각종 논란에 휘말리며 탈퇴한 뒤 4인조로 재편해 내놓은 첫 앨범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제스키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 노래하고 싶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강성훈의 탈퇴 이후 메인보컬의 부재로 멤버들의 역할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서브 보컬인 (장)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죠. 다른 멤버들도 기존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보컬을 구사하도록 노력했어요. (이)재진도 이제 포

지션을 바꿔야 할지 몰라요. 랩이나 댄스를 맡았던 재진이 보컬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하하하!”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해도 팀 재편에 따른 변화는 부담감과 책임감, 동시에 팬들에게 미안함으로 이어졌다.

“팬들께 가장 죄송스럽죠. 6명이 함께했을 때가 저희에게 가장 좋은 추억이니까요.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각자 맡은 파트의 분위기를 살려야 해서 그만큼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오래 준비했어요.”

그렇게 내놓은 새 앨범은 뉴트로 음악이다. 1990년대 중후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이들에게 잘 어울리는, 당시 감성이 살아 있는 리듬앤블루스를 내세웠다.

“추운 겨울, 마음을 녹여줄 만한 곡이예요. 특유의 ‘옛날’ 감성일 수도 있지만, 우리만의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젝키(젝스키스) 음악은 시간이 흘러도 대중이 좋아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기도 하고요.”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내달 3일 빅히트 손 잡고 첫 앨범 “음악·퍼포먼스 등 시너지 기대감”

‘방시혁 프로듀서의 여자친구’는 어떤 모습일까.

7개월 만에 돌아오는 걸그룹 여자친구에게 시선이 쏠린다. 지난해 7월 소속사 쏘스뮤직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손잡은 뒤 2월3일 첫 앨범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소속사의 외형적 변화가 그룹의 전체적인 콘셉트나 색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이 같은 시선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이번 새 앨범에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 프로듀서를 비롯해 아도라, 프란츠 등 이른바 ‘빅히트 사단’으로 불리는 프로듀서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방시혁은 수록곡 중 첫 번째 트랙의 ‘래버린스’와 마지막 곡 ‘프롬 미’ 가사 작업에 참여했다. 또 새 앨범 ‘회:래버린스’의 타

이틀에서도 볼 수 있듯 부제를 함께 사용하는 빅히트 특유의 음악적 성향도 담았다.

쏘스뮤직 측은 28일 “여자친구의 이번 앨범은 쏘스뮤직과 빅히트가 협력해 만든 첫 결과물”이라면서 “음악과 퍼포먼스, 비주얼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음악적 ‘서사’에도 중점을 두었다. 여자친구는 앞서 21일 그동안 발표한 앨범의 타이틀곡 뮤비를 하나로 엮은 ‘어 테일 오브 더 글래스 비드: 프리비어스 스토리’(A Tale of the Glass Bead: Previous Story)를 공개하며 ‘성장 서사’의 전개를 예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동안 단순히 ‘파워청소’이라는 콘셉트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여자친구는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빅히트와 합작하며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더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음악적 서사로까지 확장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카리스마 김혜수 vs 모성애 김태희 ‘안방전쟁’

김혜수 ‘하이ENA’서 변호사로 변신 김태희는 ‘하이바이…’ 유령 엄마역

연기자 김혜수와 김태희가 2월 안방극장 맞대결에 나선다. 각각 SBS 금토드라마 ‘하이ENA’와 tvN 토일드라마 ‘하이바이! 마마’로 비슷한 시기 나란히 시청자를 찾는다. 카리스마와 모성애라는 극과 극의 매력을 내세워 벌써부터 호기심을 자극한다.

김혜수는 2월21일 첫 방송하는 ‘하이ENA’를 무대 삼는다. 극중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고 목표를 이뤄내는 변호사 정금자를 연기한다. 재벌을 위해서라면 운운복을 입고 막춤을 추고, 건달들과도 몸으로 부딪힌다. 상대역이자 엘리트 변호사인 주지훈과는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인다. 그동안 법정드라마 장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캐릭터다.

이 덕분인지 김혜수는 올해 영화 촬영 스케줄이 빠곡하게 찬 상황임에도 일찌감치 출연을 결정했다. 작년 10월 말부터 부지런히 촬영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공개한 드라마 예고 영상에서 특유의 호쾌한 매



‘하이ENA’ 김혜수



‘하이바이! 마마’ 김태희

력을 뽐내 시청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카리스마로 무장한 김혜수와 달리 김태희는 부드럽고 영동한 매력을 발산할 기세다. 2월22일부터 선보이는 ‘하이바이! 마

마’는 유령이 된 엄마가 딸과 남편을 다시 만나 벌어지는 판타지 드라마다. 2015년 SBS ‘용팔이’ 이후 5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작이다.

아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유령 엄마’의 모성애가 중심인 만큼 김태희의 연기 변신이 기대를 모으는 요소다. 실제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그는 극중 엄마 캐릭터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극중 아이의 이름인 서우가 실제 딸의 이름이란 점도 감정몰입을 돕는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김태희가 아역 연기자 서우진과 자연스러운 엄마와 딸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